

국보관

수보리상(산스크리트어: 수부티)

국보

이 상은 석가모니의 십대제자 중 한 명인 수보리의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34 년의 작품으로 탈활견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이 정말로 수보리를 표현한 것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매끈한 피부의 젊은 승려가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는 부처의 제자 아난을 묘사하는 표준적인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뛰어났던 아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다고 전해지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글로 엮어 초기 경전을 제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사후 아난은 기원전 400 년경 제 1 차 불전결집(제자들이 각자가 기억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불경을 편집했던 사업)이 열리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